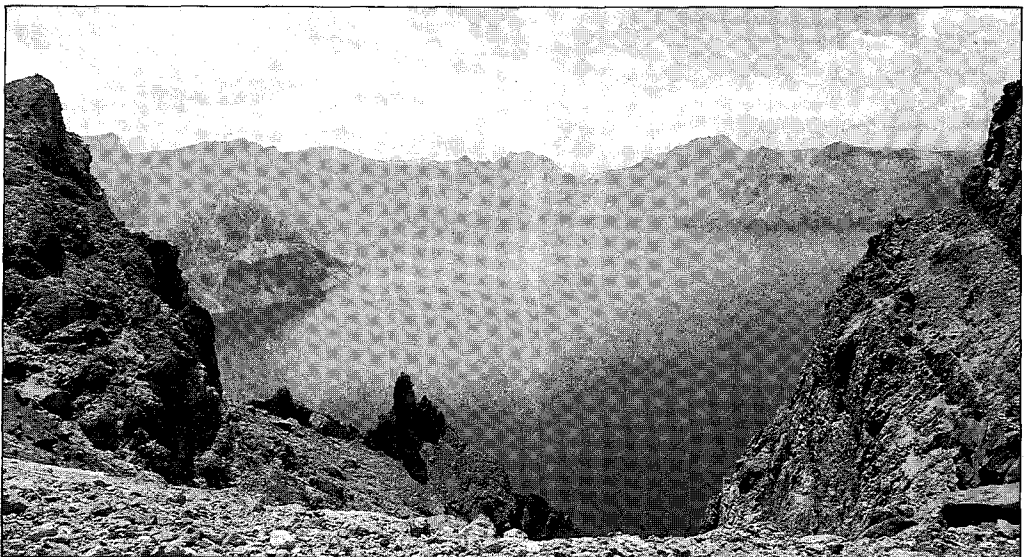

배달민족 정기 이어주는 령산 자연자원의 보고

백두산 지역의 높이별로 조사된 특산식물들

許 南 周 (周海林産代表)



〈前號에서 계속〉

백두산 천지

1. 백두산 정산 측후소 부근의 초고산지역 식물

두메양귀비, 흰두메양귀비, 둥근범꼬리, 애기씨범꼬리, 나도개미자리, 담자리꽃, 좁은잎돌꽃, 바위돌꽃, 린네풀, 차일봉개미자리, 구름송이풀, 좁평이밥, 구름바위취 콩버들, 두메구절초, 털무메자운, 두메수리취, 산용담, 가솔송, 너도양지꽃, 삼수개미자리.

2. 수목한계선 이상 고산초원지대 식물 (표고 2,000-2,400m지역)

하늘매발톱, 둥근바위솔, 애기냉이, 과꽃,

괭이눈, 좁참꽃, 바위구절초, 감동사초, 두메자운, 꽃창포, 화살곰취, 가솔송, 바위돌꽃, 비로용담, 담자리꽃, 구름국화, 황산차, 노랑만병초, 애기금매화.

3. 약화빈관 부근 일대의 식물

(표고 1,700m지역)

나도옥잠, 애기나리, 월굴, 홍월굴, 우드풀, 노루삼, 설령쥐오줌, 땡땡이, 두루미미꽃, 흰따말기, 가는줄바꽃, 들쭉나무, 닳꽃, 비로봉쭉, 등대시호, 곱향나무, 털사철난, 포대난, 은양지꽃, 가는돌꽃, 어리곤달비, 흰장구채, 오랑캐장구채, 나

리난초, 나도씨눈난, 당잔대, 단천향, 장백제비꽃, 종비나무, 가문비나무, 애기황새풀, 사스레나무, 산제비난, 술래팽이, 털향유, 나도수영, 도깨비영경귀.

4. 천지및 온천부근 일대의 식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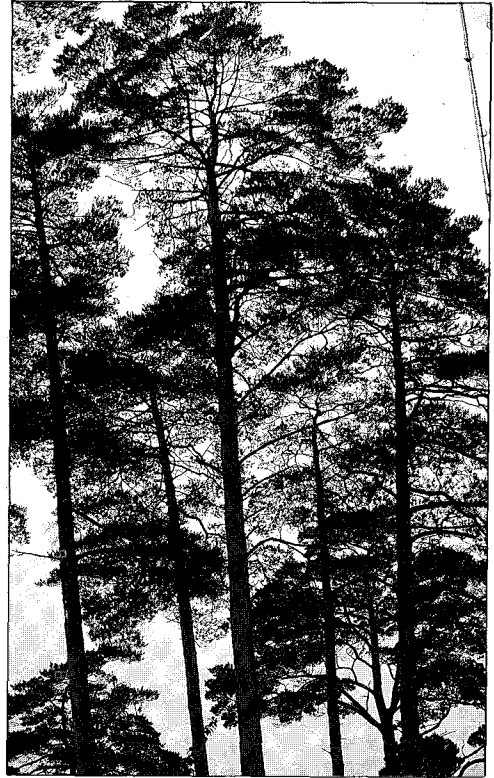
(표고 1,700-2,000m)

애기물매화, 좁은잎돌꽃, 박쥐나물, 솜방망이, 미역취, 개화향, 투구꽃, 쫄대승마, 각시투구꽃, 큰오이풀, 가는잎오이풀, 애기줄바꽃, 아기투구꽃, 닳꽃, 어리곤달비, 콘달비, 곱향나무, 금방망이, 개갓냉이, 매밭툭꽃, 분홍바늘꽃, 좁새풀, 큰뽕무, 호바늘꽃, 화살곰취, 흰따말기, 오리나무, 더부사리(불로초), 긴잎곰취, 황산차, 콩버들, 난쟁이버들, 털쥐손이, 호바늘꽃, 두메바늘꽃, 눈산버들, 장백송, 잣나무, 피나무, 딱총나무, 산겨릅나무, 사스레나무, 종비나무, 분비나무, 만주잎갈나무, 콩버들, 은양지꽃, 난쟁이패랭이꽃, 술패랭이꽃.

5. 일제의 독립투사의 고난의 의지가 깃든 유두산및 유두촌 일대의 식물

털향유, 늘어진장대, 가는잎췌기풀, 당아욱, 분버들, 꽃버들, 능수쇠뜨기, 덩굴며느리주머니, 왕괴불, 오갈피, 시호, 개시호, 물별꽃, 도라지모싯대, 쇠서나물, 말털이슬, 매꽃, 가는잎바디, 만삼, 벌갈퀴, 애기봄맞이, 꿩의비름, 단풍터리풀, 도루박이, 명석말기, 분버들, 종오이풀, 만주잎갈나무, 젓나무, 딱총나무, 자작나무, 육지버들, 옹취, 흰귀룽나무, 가는다리장구채, 개감채, 수염풀.

6. 이도백하에서 장백산 입구까지 길옆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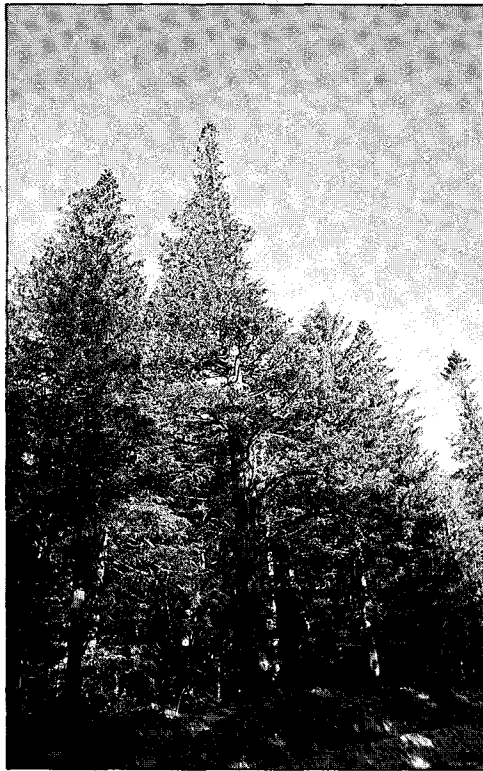


분비차너림

대 식물(표고 1,120m 지역)

백산차, 노루발, 나리난초, 질경이택사, 당개기치, 당터리풀, 줄바꽃, 털동자꽃, 단풍마, 속새, 통밭, 꼬리풀, 천남성, 하늘말나리, 물곰취, 호골무꽃, 붉은참반뒤, 도깨비우산, 자주꽃방망이, 영아자, 흰투구꽃, 제비동자꽃, 곱걸이풀, 어리곤달비, 애기금매화, 매밭툭평의다리, 땅비슬이, 흰전동싸리, 만주자작나무, 분비나무, 종비나무, 느릅나무, 피나무, 잎갈나무, 황철나무, 산겨릅나무, 분버들, 인가목, 종덩굴, 설령쥐오줌, 산부채.

우리들의 8월초의 白頭山行은 시기적으로 다소 늦었던 감이 있었다. 그러나 植物



미인송림

學者들이 아닌 순수 아마추어 식물동호인의 모임인 韓國自生植物同好會員들이 남한에서는 전혀 볼수없는 白頭山 特産植物을 100종이나 찾아내어 사진으로 촬영하였음은 그리 쉬운일이 아니다.

물론 그간에 많은 산행으로 전문가에 결

코 되지지 않는 植物識別眼과 分類知識을 의하고는 있었지만 무엇보다 서울大 명예교수이신 李昌福박사님의 난데없는 지도와 분류에 대한 훈련의 열매가 아니겠는가?

백두산엔 위에서 조사기록한 植物들외에 훨씬 많은 종이 있겠지만 금번 답사시 開花期를 놓쳐버린 노랑만병초, 담자리꽃, 황산차등의 대표식물들의 꽃들을 촬영할 수 없었던 큰 아쉬움을 가슴에 묻은채로 백두산을 칠수 하면서 내년 또는 다음번엔 남의 땅을 거쳐서 판나라부분의 백두산을 볼 것이 아니라 내나라땅을 밟고서 우리의 백두산 식물을 조사해야 되겠다는 헛된 다짐을 하면서 下山하였다.

천후가 변화무쌍 하다는 표고 2,700m정 상부근에서 보낸 만 5일간은 별로 구름이 없는 쾌청한 일기였음은 우리들이 단군할아버지께 특별한 환대를 받았음을 착각케 하는 훌륭한 날씨에 참으로 감사하며 8월 9일 새벽에 美人松호텔을 출발하여 비포장 500여리, 포장 200여리를 달려 용정을 지나 연길에 도착한 것은 날이 꼬박 저물어서였다. 뽀안면지로 터덜거린 비포장길이 간밤에 온 비로 신선한 내음을 풍기고 있었다.★

계좌번호

○농협중앙회 : 031-01-231375

○국민은행 : 827-01-0037-647

한국독립기협회

권 오 진